

새누리교회(볼리비아), 덕수교회(토고), 주안교회(페루), 서울 강남지역 4개 교회(쿠바)

## 무너진 볼리비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 스페인어 성경 5,596부



3월 23일,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들과 새누리교회(김민석 목사)의 후원으로 볼리비아에 스페인어 성경을 보냈습니다. 새누리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마련된 아가페 카페를 운영하면서 얻은 1년 수익금 약 500여 만 원을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을 위해 본 공회에 보내왔고,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들의 후원이 더해져서 볼리비아에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 성경으로 토고에 생명의 빛을 밝혔습니다!

- 불어 성경 9,016부



4월 18일, 덕수교회(김만준 목사)의 후원(2천만 원)으로 토고에 불어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김만준牧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으며, 성경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온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받게 될 수많은 토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소망하였습니다.

## 가정폭력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페루 여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 스페인어 성경 44,720부



6월 1일, 주안교회(주승중 목사)의 후원으로 페루에 스페인어 성경을 보냈습니다. 기증식에 참석한 주안교회 성도들은 보내는 성경이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무사히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기증된 성경은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과 어린이 성경공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4개 교회가 연합하여 쿠바에 4천여 개의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 4,608부



6월 1일, 강남동산교회(고형진 목사), 영동교회(정종희 목사), 은무리교회(조용선 목사), 초원교회(김성남 목사)의 후원으로 쿠바에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을 보냈습니다. 남미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기독교인은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성장하여,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성경은 7월 말 경에 쿠바에 도착하여 쿠바성서위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